

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 is done.

→ 항상 불가능해 보이지만, 해내고 나면 가능해진다.

A pessimist see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; an optimist sees the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.

→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보고,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본다.

The more I learn, the more I realize how much I don't know.

→ 내가 더 많이 배울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더 많이 깨닫는다.

It's not that I'm so smart, it's just that I stay with problems longer.

→ 내가 특별히 똑똑한 건 아니다. 단지 문제와 좀 더 오래 머물렀을 뿐이다